

석사학위논문

천사들의 선물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 영 과

부 혜 선

2006년 7월

# 천사들의 선물

지도교수 박경란

부 혜 선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7월

부혜선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6년 7월

# The GIFT of ANGELS

Hae-Sun Bu

(Supervised by professor Kyeong-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ULY 2006

## ABSTRACT

Angels are spiritual beings created by God who help carry out His work as agents and messengers and to glorify Him. The Bible presents no specific doctrine of Angels. The Bible assumes that God is attended by a company or HOST of heavenly beings who are subordinate to Himself and who share His company and reflect His glory and majesty. Angels always appear in relation to God and humanity in the role of servants.

As a believer, the present writer knows they exist. The Gift of Angels is intended to strengthen readers' belief as they gain insight into the nature of angels, discover how God uses them to send his messages, and meet the angels among us (Hebrews 13:2). Inspirational Scripture and original stories connect the readers to angelic encounters and God's special servants.



## 천사들의 선물

하나님의 거룩한 메신저들과의 영감을 주는 만남

---

께

수천만의 영물이 지상을 걷는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깨었을 때나 잘 때나.  
그들은 모두가 밤낮없이 하나님의 성업을 보면서 찬미를 그치지 않는다.

존 밀턴

---

드립

## 목차

수호자 역할을 하는 천사들 .....	1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천사들 .....	11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 .....	27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천사들 .....	38
우리에게 미래에 대하여 말해주는 천사들 .....	50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 .....	56
하나님의 목적을 실천하는 천사들 .....	62
주님의 천사 .....	73

## 수호자 역할을 하는 천사들

주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11 - 12



주께서 말씀하셨다. “자, 내가 천사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케 하리라.”

출애굽기 23:20

헤롯의 손으로부터 안전하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서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다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 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라. 1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아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위대한 지시로- 임무를 정하시고 직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성스러운 천사들이 천국에서 주를 받들고 찬양하면서도 여기 땅위에서 주의 약속대로 자비롭게 우리를 돕고 보호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함께 사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유일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영원히. 아멘.

공동 기도문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자신 안에 위대한 확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폰투스 의 에바그리우스 (Evagrius of Pontus)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32:1 - 2

## 한밤중의 방문객

한 젊은 미망인이 남편을 잃고 난 후의 일을 말한다. 여섯 명의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할 형편에 놓인 그녀는 가족들에게 크게 의지하며 힘을 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낮 시간 대부분이나 할일이 많을 때만큼은 용감해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침대에 잠들고 나면 집은 조용해졌고 두려움이 그녀에게 엄습해왔다.

그녀는 매일 밤 문을 잠그고 창문의 빗장을 걸었고 책을 읽기 위해 침대 옆에 램프를 켰다. 하지만 그녀는 옆에 있던 퀼트 아래서 밀려 올라오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집에서 나는 소리들은 매일 더 커져갔다. 삐걱거리거나 바스락거리는 소리 모두가 무기를 가진 강도의 인기척처럼 들렸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판단력은 저만치 달아났다. 이 젊은 미망인은 보통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오래 책을 읽고 램프를 켜 놓은 채 잠이 들곤 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움츠러드는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다.

“주님.” 어느 날 밤 그녀는 겨우 어렵게 잠들기 전까지도 기도했다. “제가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께서 절대 저를 저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님 부디 제게 확신을 주세요.”

미망인은 자정 때 즈음 잠에서 깨어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방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키가 큰 남자가 침대의 발끝 쪽에 서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도 가만히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다. 미망인은 그 남자를 응시했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는 그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수호천사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 - 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돌아누웠고 평화롭게 다시 잠들었다. 그녀는 그 천사를 다시 본적이 없었지만 천사가 항상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보며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는 저녁 시간이 그녀를 공포와 두려움의 손아귀에 메어두지 못했다. 2

늘 나의 곁에 있는 천사여,  
당신은 분명 너무나 자비로우시겠지요.  
천국에 있는 당신의 집을 떠나  
나 같은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 왔으니까요.

작자 미상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짧은 전화 한통. 이것이 조앤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검사에서의 의심스럽게 보이는 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늘 병원에 다시 방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진단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절망적이었다. 암. 며칠 후 조앤은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이 끝난 후 몽롱한 상태에서 조앤은 잠이 들었다 깼다했고, 가끔 꿈과 주변의 현실을 분간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날 잠깐 동안 조앤은 자신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자신이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의 방 입구에 서있는 남자는 그녀의 아들 처럼 보였지만, 흐릿하게 보여 눈을 깜박이다보니 그녀는 자신이 잘못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냥해 보이는 이방인은 온통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진료하려 방으로 온 것이 아니었고 맞은편에 보이는 문에 기대어 서있을 뿐이었다. “그분의 눈은 계속 내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 눈도 그분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분의 시선은 위협적이지도 우호적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한결 같았지요. 그분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지만 궁금했어요.” 후에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서있었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조앤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잘 보려고 마지막으로 눈을 깜박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그녀는 그가 다시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눈을 깜박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 그는 가고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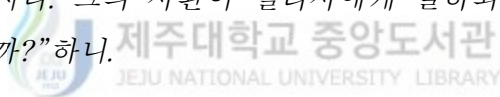
그는 누구였을까? 조앤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중에 있는 그녀를 지켜보라고 병실 문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고, 아주 잠시 동안

그녀가 영혼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조앤은 수술에서 빨리 회복되었고 암은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 3

췌! 아가야, 가만히 누워 자거라.  
신성한 천사들이 너의 침대를 지키신단다.  
수없는 천국의 축복이  
가만히 너의 머리에 내려온단다.

아이작 왓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열왕기 하 6:15 - 17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왕국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만드신 육신이 없는 영적인 창조물이다.

마틴 루터

태풍이 부는 내내

다아시가 부모님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아웃터 बैं크스 한 편의 오크라코케 섬으로 가 샬리 이모네의 바닷가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겨우 열 살이었다. 같이 놀 또래 친구는 없었지만 다아시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거나 혼하지 않은 오래된 이모네 커다란 집을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다아시는 그 오래된 집 이층에서 혼자 방 하나를 썼다. 그녀는 무남독녀여서 혼자 자는데 익숙했지만 그 방은 원래 자기 집 방보다 훨씬 컸다. 창문들은 커다랗고 천장은 높았다. 밤에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잠드는 것이 다아시에게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바닷가에서 열대성 태풍이 불어오는 밤이면 정말 그러했다. 늦은 오후, 그 바람으로 해변의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땐 휘몰아치는 비가 집에 퍼붓듯이 쏟아졌다. 다아시는 교묘하게 주위를 돌려서 평소보다 더 오래 어른들과 안 자고 남아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잘 시간이 되었다.

엄마는 그녀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그녀를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 감싸주었고 그녀가 기도하는 동안 옆에 있어주었다. 다아시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하지만 막상 혼자 있으니 방안에 번갯불이 번쩍하고 커다란 창문 밖으로 빗방울의 천둥소리가 나자 그녀는 무서워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이불을 재끼고 계단 아래로 뛰어 내려가 아빠의 두 팔에 안겼다.

“왜 그러니, 다아시.” 아빠가 말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 이 오래된 집은 여러 차례나 태풍을 이겨냈거든.” 그리고서 그는 다아시를 위

층으로 데려가서 다시 이불을 덮어 꼭 감싸 안아 주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방을 나가기 전에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줄 천사들을 보내 주신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단다. 이제 그만 자거라. 내가 문을 열어놓고 조금 있다가 널 다시 보러 올게.”

다아시의 아빠가 불을 끄고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그녀는 창문에 부딪히는 비 소리를 들으면서 번개와 천둥사이의 시간간격을 재며 어둠 속에서 깨어 누워있었다.

잠들기 직전에 다아시는 문가에 서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어두운 방안에서 그녀는 그것이 약속을 지키러온 아빠라고 생각했다.

그 태풍이 불던 밤, 그녀는 두 번이나 더 잠에서 깨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 모양의 그림자를 보았다. 매번 그녀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고 다시 곧 잠들었다.

그녀가 아침에 잠을 깬을 땀 밝은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웠고 태풍의 먹구름은 사라져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다아시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에서 아침식사를 하시는 엄마, 아빠 그리고 셸리 이모에게 갔다.

“어떻게, 잠은 잘 잤니?” 엄마가 물었다.

“태풍 때문에 몇 번 깨기는 했어요.” 다아시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빠가 절 지켜봐주시는걸 봤어요. 그래서 전 무섭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 엄마나 이모였을 거다.” 아빠가 말했다. “난 정말 올라가 보러

고 했다만, 태풍 때문에 부엌 뒤에 저장실이 부서졌지 뭐니. 난 그걸 고치느라 바빴었고 그냥 잊어버렸단다.”

“아니에요.” 엄마가 대답했다. “내가 아니었어요. 난 네 아빠가 널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모두가 샬리 이모를 쳐다보자, 그녀는 그냥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수호 천사였나 보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다야시 아가를 돌보러 왔었나봐!”

4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천사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 7



모든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천사들의 형이상학과 생리학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조세프 글랜빌

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하다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하기 시작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더라.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하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어깨를 흔들어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거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

그리스도교인들은 천사들의 영광스런 업적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태양이 초의 불빛을 가리듯 악마 같은 힘의 세계를 영원히 소멸시킨다.

빌리 그레이엄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확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민수기 20: 15 - 16



천사는 우리에게 고귀한 은혜를 나누어주거나 관장하는 분들이다. 그분들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의 방패 역할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며, 어떠한 악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 하도록 한결같이 염려하신다.

존 켈빈

(주의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치켜드시며 안으셨도다.

이사야 63:9

## 미지의 구조자

커다란 빗방울이 앞 유리에 물보라 치듯 부딪혔다. 얼마 안 있어 에밀리가 운전을 하는데 앞이 안보일 정도가 되었다. 엄청난 번갯불로 인하여 그녀는 앞을 더 볼 수 없었다. 필사적으로 그녀는 차를 세웠고 비상등을 켜 놓고 기다렸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귀청이 떨어질 지경이었지만 곧 비가 잦아들었고 그녀는 다시 서서히 차를 도로로 움직였다.

대학에서는 고된 마지막 몇 주를 보냈다. 에밀리는 피곤했고 몹시 집에 가고 싶었다. 그때 갑자기 사고가 났다.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물이 흥건한 포장도로를 가로지르며 활주하는데 브레이크도 소용이 없었다. 차가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기울어졌을 때 그녀가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에게 큰소리로 도움을 청했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다는 것을 그녀는 나중에 기억해냈다.



에밀리는 충돌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튼튼한 팔이 자신을 들어올려 차에서 꺼낸 것은 분명히 기억했다. 어떤 안심이 되는 목소리가 그녀에게 “쉬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격려했다.

그녀는 얼굴에 살며시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누워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때 갑자기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고 사이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고 바로 그것이 자신의 차라는 것을 깨달았다. 곧 앰블런스 운전기사가 그녀 옆에 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녀의 이름과 차안에 혼자 있었는지를 물었다.

“네. 전 차에 혼자 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같이 차에 탔던 사람은 없고 - 저를 차 밖으로 꺼내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괜찮아요?”

“제가 사고를 신고한 사람입니다.” 옆에 서있던 남자가 말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왔을 땐 차는 이미 불타고 있었고, 이 젊은 여자 분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아마 혼자서 빠져 나오셨나 봐요.” 응급치료사가 말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강력한 남자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를 덥석 들어올려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았던 것을 느꼈다. 천사였을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한다. 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보다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태복음 26:53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 지명하신 비밀요원들이다.

벳시 윌리엄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아주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언제나 도울 준비를 하고 당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작자 미상

추락!

“천사가 날 잡았어요.” 안젤라의 열세 살 아들, 나다니엘이 털어놓았다. “제가 할 수 있는 쪽으로는 다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말이 되는 건 그것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명하신다는 생각은 나다니엘이나 그의 형제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11살, 12살이 되면서 그러한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며 겉으로는 아닌 척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겠죠. 그럼요. 맞아요, 엄마.”

하지만 찌르레기 새집을 없애기 위해 이층 창문으로 나가 굴뚝 위로 벽을 타고 올라갔던 경솔한 행동의 결과, 나다니엘은 이러한 진실을 믿게 된 게 분명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 “사고” 직후 그는 안젤라에게 전화로 짧게 말했다. 그녀는 일순간 공포를 느꼈고, 직장을 가진 엄마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기가 꺼려졌다.

“그래?” 그녀는 마침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좋은 소식은 굴뚝에 있던 새집을 치웠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제 눈썹이랑 가슴에 털이 없어졌다는 거구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가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기 위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나다니엘은 굴뚝 위에 웅크리고 앉아 석유를 “조금” 부었고 성냥을 켜서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뿔어져 나온 불덩어리가 그를 5 피트 굴뚝에서 경사가 가파른 지붕으로 날려버렸다.

그날 안젤라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르면서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에 대한 긴 설교를 했고, 신을 시험하는 경솔함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덧붙이면서 서둘러 집으로 갔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는 며칠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들의 설명을 듣게 되었을 때 그녀가 느꼈던 기쁨도 기억했다. 7



전차선로에 끼다

마리와 앤은 6 주 동안 유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나폴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리의 오빠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들의 여행을 마무리 하려 했다. 이들이 나폴리에 도착했을 즈음엔 그들은 자신들을 능숙한 여행자라고 여겼다. 유로 기차표는 다 써버렸지만 차를 렌트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근처 도로로 나가 만약을 대비한 운전연습을 했다. 그들이 렌트한 피아트는 느렸지만 튼튼했고 그냥 괜찮을 것 같았다.

앤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두 여성은 어느 순간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는 혼란 속에 갇혀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만(灣)을 향해 운전해 갔고 멀리서 터키옥색 바닷물이 보였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려면 어려운 곡예운전을 여러 번 해야 했다. 첫째, 두 줄로 늘어선 차들을 가로질러 열려있는 철문으로 들어가 두 줄의 시내 전차선로를 건너고 다른 쪽으로 열려있는 철문으로 나와야 만(灣)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들은 사고 없이 차들을 빠져나와 열려있던 첫 번째 철문을 통과해 전차선로로 갔다. 하지만 그때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쿵! 차는 전차선로 위에 멈췄고 철문은 둘 다 닫혀서 그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시내 전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들이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공포에 질린 전차 기사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질끈 감았고 피할 수 없는 그것을 기다렸다.

그들은 부드럽게 휘익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들의 차가 만(灣)으로 가는 길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철문 둘 다 여전히 들어 갈수 없게 닫혀 있었다. 조금 열려있는 차 창틈으로 마리는 지나가던 행인이 같이 가고 있던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어? 이걸 기적이야.”

마리와 앤은 그날 나폴리의 거리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들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자신들이 자만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과 그분의 전능한 천사들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영원히 남게 되었다. 8

천사들이여, 천사들이여, 어찌나 강건한지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심지어는 노래로도 그분을 따르는 구나  
천사들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경계하는 도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불러야 마땅하다.

천사들이여, 천사들이여, 불의 불꽃들이여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외심을 갖게 하고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도다  
적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구나.

벧시 윌리엄스 9

나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볼 수 없는 위험도 보신다.  
그리고 내가 가장 깜깜한 어둠속에 있을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  
막강한 천사를 보내주신다  
비록 내가 천사들이 거기 서있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주님의 천사들은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나를 호위하고  
밤이나 낮이나 내 주위를 지키신다.

에드 스트라우스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태복음 18:10

## 불의 검

1956년 동아프리카에서 마우마우 조직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동 중이던 한 마우마우 테러단은 라우리 마을로 와 이 마을을 포위하고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300명의 주민들을 살해했다. 3 마일도 채 안되는 곳에는 선교사인 부모들로부터 떨어져 지내며 공부하는 자녀들의 사립학교인 리프트 밸리 학교가 있었다. 마우마우 조직원들은 곧바로 학살현장을 떠나 학교를 마을처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의도로 창, 활과 화살, 곤봉과 횃불을 들고 그 학교로 갔다.

이 기숙사 학교에 있던 어린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공포는 쉽게 상상이 간다. 파멸된 라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들었지만 어린 아이들과 여 선생님들이 마땅히 피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었다.

한밤의 어둠속에서 불이 밝혀진 횃불이 학교를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얼마 안 있어 테러범들의 포위망이 학교 주변에 구축되었고, 도망 갈수 있는 길은 모두 차단되었다.

마우마우 테러범들이 육설을 하고 고탐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서 그들은 학교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고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고 고탐소리는 더 커졌으며 그들은 좀더 가까이 왔다. 하지만 창을 던지기에 충분히 가까이 그들이 다가 왔을 때 그들은 멈춰 섰다.

마우마우는 물러서기 시작하더니 곧 정글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당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갔고 학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군대가 보내졌다.

군대가 도착했을 즈음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테러범들은 이미 흩어져 도망가고 없었다. 군대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했고 기적적으로 마우마우 기습 부대 일당 전부를 붙잡았다.

이후 재판에서 피고인 마우마우 우두머리는 재판관 앞에서 증인석으로 불러 나갔다. “당신은 라우리 주민들을 살해했습니까?” 재판관이 물었다.

“네.” 가 답변이었다.

“당신은 리프트 벨리에 있는 선교학교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할 의도였습니까?” 재판관이 물었다.

“네.” 라는 대답이 나왔다.

“음, 그러면.” 재판관이 물었다. “왜 그 학교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피고 마우마우 우두머리가 답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학교를 공격해 파괴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가자 갑자기 우리와 학교 사이에 수많은 남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손에는 불의 검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겁을 먹고 숨기위해 달아났습니다.” 11

바퀴 뒤에 천사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카렌은 북 오클라호마에 있는 집을 떠나 550마일의 긴 여행을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목적지가 겨우 50마일도 채 남아있지 않았었다.

북 루이지아나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빨간 신호등에 가까이 가자 매리 엘리스는 뒤쪽 바퀴에서 갑자기 킁 소리와 슈욱 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고 백미러를 들여다보자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통제 불능의 상태로 자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비켜서기에는 너무 늦었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엄청나 충돌이었다 — 트럭이 그녀의 차 뒷부분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그녀의 차는 앞차 쪽으로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밀려나갔고, 구겨져서 망가진 두 차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될 뻔했다.

말짱한 정신으로 기적처럼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 차 안에 앉아 있는 동안 매리 엘리스는 차바퀴 뒤에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 그건 아주 강하면서 편하고 안정된 느낌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바로 그 순간에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매리 엘리스는 운전석 창문 밖에서 떨리는 몸으로 다가오는 트럭 운전사를 보았다. 그는 운전석 문을 열었고, 떨쭉한 그녀를 보고 놀란 그는 그녀가 차 밖으로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의 차가 비록 완전히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녀에게는 멍든 자국 하나 없었다.

“정말 죄송해요.”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서둘러 오고 있다고 말

해주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트럭 운전사가 말했다. “전 정말 당신을 들것에 실어 옮겨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운이 좋은 게 아니고 -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매리 앨리스가 힘주어 말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절 구하러 왔던 거예요.” 12

인생이라는 강에서 황금 같은 순간들은  
우리를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는 모래 밖에 보지 못한다.  
천사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떠난 후에야 그것을 깨닫는다.

조지 엘리엇

##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

나네트는 11살의 나이에 벌써 뛰어난 수영선수였다. 그녀는 근처 호수에서 매일 수영연습을 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8월의 어느 햇살 가득한 날, 그녀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다.

그녀가 호수 가운데쯤에 있던 뗏목 까지 헤엄쳐 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여름이 시작되자 그녀의 체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날, 그녀는 숨이 가빠오기 전까지 뗏목으로 세 번 수영해 갈 수 있었다. 그날의 수영연습을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헤엄쳐 갔다 오겠다고 결심했다. 바로 그때 빌리를 만났다.

나네트는 빌리를 알고 있었다 -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 그의 별명은 호숫가 두목이었고 그는 그 별명을 아주 정정당당하게 얻은 것이었다.

나네트가 빌리쪽으로 수영해가자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잡고 물 밑으로 밀어 넣었다. 비록 왕복으로 세 번이나 뗏목까지 수영해 갔다 온 후라 이미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나네트는 숨이 가빠서 헐떡거렸다. 그녀는 그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빌리는 이를 갈며 그녀를 힘껏 다시 물밑으로 밀어 넣었다.

나네트는 이제 너무 지쳐 빌리가 내리누르는 힘을 다시 물리칠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어두운 초록빛 물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태양을 보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다시는 살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나네트가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가 수면 밖으로 나온 것이었고, 한 남자가 뗏목 한편에서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팔을 뻗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녀를 뗏목위로 끌어 올렸고 그녀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본 후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해안가로 수영해갔다.

나네트는 뗏목에 있던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수영을 하면서도 아무도 보지 못했었다. 자신이 어떻게 다시 물 밖으로 나왔는지, 어떻게 뗏목까지 수영해 갔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아예 기억이 없다. 빌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하지 못한다. 그녀가 뗏목에서 쉬는 동안 어디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평생 호수에서 있었던 사고를 평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네트는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 천사가 그 어두운 초록빛 물속에서 자신을 끌어 올려주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 주신 것이다. 13





##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

“천사”라는 단어는 간단히 말하면 “메신저”라는 뜻이다.

단 쉼표



영광의 나라 천사들아,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너희들은,

이제 구주 나심을 전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다시 나신 왕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제임스 몽고메리

## 예수님의 탄생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제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대에 해산 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제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하더라.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

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모두 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14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뭇 천사 내려와  
옛날의 그 영광스런 찬송을 한다.  
황금 비파를 켜기 위해  
땅으로 몸을 숙인다.  
'천국의 가장 인자하신 왕으로부터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려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에드먼드 해밀턴 시어즈

## 문가의 천사

테레사는 여러 해 동안 기도해왔고 희망을 포기한 지도 오래 됐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는 그녀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았다.

그녀는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은 채 한 부부가 세 명의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매우 꼼꼼한 어머니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식사예절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그런 장면을 본 테레사의 마음은 아팠다.

교회에서 제단 쪽 의자에 앉은 그녀는 긴 예배 시간동안 어린 아들을 달래주는 한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소중한 남편에게는 달래줄 아들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 슬퍼졌다.



그녀는 매일 갓난아기의 울음과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가의 쾌활한 노래 소리를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녀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다. 가게들은 아이들로만 가득 찬 것 같았고 어린이 용품만 잔뜩 쌓아 놓은 것 같았다. 산타 노래와 크리스마스 연휴의 기쁨은 그녀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친구들이 할머니 댁을 방문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자신의 세상 한 구석 만을 제외하고는 세상이 숨을 죽이고 기대에 차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빨간 벨벳 원피스를 사서 입힐 어린 딸이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장난감 기차를 놓아줄 담황색 머리칼을 가진 아들도 없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마다 똑같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 “너

희 들은 언제 첫 아이를 가질 예정이니?”

12월 중순이었다. 눈이 마을을 덮었고 테레사는 쇼핑을 하러 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길모퉁이에서 색깔이 있는 전등으로 장식된 작은 나무를 골랐다. 그리고서 그녀는 먼지가 수북한 골동품 가게로 들어가 남편 짐의 수집품으로 마음에 드는 트랙터를 찾아냈다. 가격표를 보고 거의 사지 않을 뻔하기는 했지만 선물을 사줘야 할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녀는 그것을 남편에게 사줄 수 있었다.

마을을 가로 질러가다 그녀는 사탕가게에 들러 특별한 과자와 사탕을 조금 샀다. 테레사는 최고의 연휴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집으로가 설탕을 입힌 쿠키를 굽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틀고 난로 옆에서 앉아 따뜻한 에그노그(설탕우유에 달걀을 넣은 음료-역자)를 한 잔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날이 추워졌다. 그녀는 온도 변화가 느껴졌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녀가 차고로 들어갔을 때 집안이 깜깜했다. 집에 먼저와 비어있는 방으로 혼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황량한 것인지.

그녀가 차고에서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무언가 낯설음이 느껴졌다. 그리고서 그녀는 종소리를 들었고 방 안에서 촛불처럼 은은한 빛을 발견했다.

“짐?” 그녀가 외쳤다. “여보, 집에 있어요?”

그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그녀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반대편 문

쪽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서있었는데 그의 겉옷은 마치 거센 바람에 휘날리듯 잔물결이 일고 있었다.

테레사는 이 사람이 강도나 침입자나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방 건너편에서 그녀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두렵지가 않았다.

“저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조만간 당신은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서 그는 사라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겨울은 봄이 되고 여름이 갔다. 가을은 떨어지는 낙엽의 소용돌이와 갈색 찌르레기 떼와 함께 지나갔다. 12월 중순에 첫눈이 마을을 덮으며 내렸다. 테레사는 쇼핑을 하러 나갔다. 그녀는 길모퉁이에서 가장 큰 나무를 샀다. 백화점에서는 빨간색 벨벳 원피스를 골랐다. 장난감 가게에서는 인형과 중국 찻잔 세트를 샀다. 마을을 가로질러 그녀는 스윗샵으로 갔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녀와 짐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있다. 15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주 외로운 사람들 집을 찾아오시고  
또한 교통 빈번히 하늘의 은총의 용무로  
날개 돋친 사자를 그곳에 보내실 것이니

존 밀턴

우리들의 베개 주변에 황금 사다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늘 위로 아래로  
날개달린 신을 신고  
천사들이 오고 간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리차드 헨리 스토다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요셉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

창세기 28:12

## 빛나는 지팡이

그가 사용했던 지팡이는 그의 어깨만큼이나 오는 긴 것이었고 오래된 옹이 투성이 사과나무에서 베어 만든 것처럼 울퉁불퉁했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다. 일부분은 짙은 갈색이었고 나머지는 사이사이가 모든 색조의 갈색을 띠는 옅은 크림색이었다. 지팡이는 그가 손으로 잡는 제일 윗부분이 좀 더 폭이 넓었고 맨 끝부분 까지 가늘게 내려왔다. 어쨌든 그 지팡이는 오래된 갈색 약병처럼 반투명하게 반짝였다.

그는 발까지 내려오는 길고 험거운 겹옷을 입었는데, 성큼성큼 걸어갈 때면 그의 튼튼한 다리주변에서 옷 소리가 크게 났다. 양모 소재로 된 무거운 회색망토를 어깨에 걸쳤고 겹옷의 흰 소매는 그의 팔꿈치에서 늘어 쪼그라든 손의 손목까지를 드러내 보였다. 머리는 대머리였는데 회색의 곱슬머리가 주변에만 둥글게 있었다. 머리 정수리의 피부는 마치 뜨거운 태양아래서 오래 걸은 사람처럼 옅은 빨간색이었다.

성(聖) 금요일이다. 제니는 그가 교회 연극단의 단원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고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제니와 그녀의 딸 페이스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집을 나섰다. 그것은 막판에 결정한 여행이었다 - 화가 났기 때문에. 제니는 톰과 결혼한 지 26년이 되었고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갔다. 이제 그들은 그저 동거인일 뿐이었다. 그들은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는, 각자 극도로 외로운 삶을 살았다.

톰은 일주일 일정으로 사냥여행을 떠났고, 다시 또 아내와 딸을 아빠 없는 연휴를 보내도록 남겨두었다.



오클라호마에 사는 제니의 친구들은 이들을 보고 기뻐했고 - 집안으로 맞으며 포옹을 하고 서로의 볼에 키스를 했다. 아이들이 노는 동안 그들은 넓고 오래된 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이힐을 신고 가운을 입은 여자아이들은 계단으로 내려와 나무로 된 맨바닥을 지나며 뽀뽀하며 걸었다. 황갈색 머리의 작은 남자아이는 나무판자 선을 따라 위아래로 장난감 자동차를 굴렸다.

날씨가 4월치고는 상쾌해서 그날 저녁 그들은 넓고 통풍이 잘되는 현관으로 나가 흔들의자에 앉았다. 행복하고 쾌활한 말소리가 저녁 시간을 채워갔다. 이 친구들은 행복한 가정을 가졌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제니가 마음속에 차갑게 가두어둔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안주인은 맨발을 흔들흔들하며 앉아 긴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면서 이야기하며 웃었다.



한 젊은 부부가 차를 타고 왔고 안주인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저녁은 드셨어요? 부엌에 스프랑 옥수수 빵이 있어요. 맘껏 드세요.” 사람들이 물밀 듯이 들어왔다 나가는 듯했다. 행복한 목소리들, 웃음소리, 친구들, 사랑, 음악, 아이들, 평화, 제니가 그토록 원했지만 그녀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이 깬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 창 밖에서는 양버들 나무 높은 가지 사이로 바람이 한숨 같은 소리를 냈다. 비치는 얇은 천으로 된 커튼이 방 안쪽으로 불러 들어왔다가 소리 없이 가만히 떨어졌다.

“돌아가지 못하겠어, 못해! 안 돌아갈 거야! 가정, 결혼, 사랑은 이래야 하는 거야. 집으로 못가겠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머릿속 고민과 씨름하며 몸부림쳤다.

얼마 후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제니와 페이스는 차에 짐을 실고 작별을 고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제니는 미시시피로 차를 몰아 돌아갔다. 그녀는 차를 도로 밖으로 몰고나가 다시는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었지만 페이스가 그녀를 필요로 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녀는 기도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시시피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제니는 더 절망스러웠다. “못 돌아가, 못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바로 그때 그녀를 향해 멀리서부터 성큼성큼 걸어오는 사람, 그를 보았다. 그의 하얀 겹옷은 그의 다리 주변에서 빙빙 돌았고 그의 딱 벌어진 어깨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망토는 안으로 말려 넓은 반원모양으로 보였다. 그가 점점 다가올수록, 머리칼이 없는 그의 머리는 정오의 햇빛으로 빨갱게 빛났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자 제니는 조금씩 차의 속도를 줄였다. 그는 참 묘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의 지팡이에서는 빛이 났다.

마침내 그 사람 앞에 다다르자 제니는 차를 세우고 그를 유심히 보았다. 그 남자도 멈추고 그녀의 차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지만 제니는 그가 정말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말하는 시늉만 한 것인지 확신이가지 않았다. 둘 중 어느 쪽이든지 간에 메시지는 분명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당신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고 계세요. 그분은 당신이 앞으로 겪게 될 것도 알고 계세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은 믿으세요. 그 분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제니는 다시 차를 몰고 가기 전에 돌아앉아 딸을 쳐다보았다.

“너도 들었니, 페이스?” 제니가 물었다.

“뭘 들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제니는 다시 창문으로 돌아보았지만 그 남자는 가고 없었다.

“지팡이를 들고 있던 남자를 봤니?”

“어떤 남자요, 엄마?” 16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천사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더냐?

히브리서 1:14



천사들은 오늘 날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우연인 것 같은 많은 일들은  
사실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천사들이 한 것이다.

로렌드 벅

천사들이 엘리야를 섬기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쭉 가서 한 나무 그림자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기도하되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하고,

그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라. 17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2 GNT<sup>1)</sup>

---

1) 그리스어 신약성경, Greek-English New Testament

## 양복 깃의 편

형사들은 자신들의 도구를 챙기고 강도 현장을 떠났다. 그들은 범죄 현장을 표시했던 노란색 띠를 거두었다. 유리 진열대에 있는 지문 감식용 먼지 때문에 생긴 자국도 청소해야한다. 가게는 조용했고 문은 잠겨있었다.

데이비드와 린다는 말없이 앉았고 정적 속에 녹초가 되 있었다. 그들은 커피메이커에서 신선한 커피를 만들었고 휴게실 냉장고에서 점심 도시락을 꺼냈다.

“우리 뭐 좀 먹어야 해요.” 린다가 진심이 아닌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2시 45분인데 아직도 떨리고 무서워요. 그 총은 정말 커 보였어요.”

앞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둘 다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신음하며 투덜거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났다. 부드럽고 예의바르게 똑-똑-똑.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앞문 쪽으로 걸어갔다. 한 노인이 커다랗게 미소를 띤 채 한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무슨 일이시죠?” 유리문에다 대고 물었다.

“물건을 사고 싶소이다. 간판을 보니 영업 중이라고 써있더군요.” 신사분이 대답하는 목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데이비드는 가게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서 그는 손님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붙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데이비드가 그 남자에게 말했다. “저희는 방금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오늘 가게에 강도가 들어서 제

아내와 저는 아직도 오싹하고 긴장이 풀리지 않았답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빨리 필요하시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곗줄이 필요합니다.” 손님이 말했다. “그런 물건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제가 좀 구식인가요? 저는 선물용으로 금목걸이도 보고 싶습니다.”

이 낮선 손님은 다정했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그가 시계체인을 고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마침내 그는 조잡한 리본과 금고리가 달린 것을 하나 골랐다. 시곗줄들 중에 하나도 그의 취향에 맞는 것이 없었나 보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주문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당연하지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린다는 이들 가까이 있었다. 낮선 이의 목소리는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웬일인지 그녀가 받은 충격을 진정시켜주었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그가 부드러운 데님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신발은 편안해 보이는 갈색 로퍼였다. 마음이 편하고 느긋해 보이는 모습이 그에게 어울렸다. 눈가의 주름은 그가 웃기를 좋아하고 거의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이 근처에서 뵈는 적이 없는 분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잠깐 일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들었던 일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그가 물었다. “다친 사람이 있나요?”

“끔찍했어요.” 린다가 털어놓았다.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 들어왔

어요. 여자가 총을 꺼냈고 남자는 진열대 위에 올라갔어요. 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우리 가게에서 제일 값나가는 남자 반지들이랑 금전 등록기에 돈을 다 가져갔어요. 손실을 다시 메우려면 몇 년은 걸릴 거예요.”

“경찰이 그들을 잡았나요?” 어깨가 넓은 이 남자는 물었다.

“아직 못 잡았어요.”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게를 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올까봐 무서워서요.”

“아니요.” 손님이 말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경찰이 그 사람들을 잡고 일주일 내로 보석도 가게로 돌려 드릴 겁니다.”

“참 바보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 손님이 지불한 돈을 금전 등록기에 넣으면서 데이비드는 생각했다.

“좋은 편이네요.” 신사의 왼쪽 셔츠 주머니 너머로 옷깃의 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말했다. “천사모양이 올해는 큰 인기예요. 그런데 그런 제품은 처음 보네요.”

“아, 네, 제 편이요. 저는 천사모임의 회원입니다. 저는 천사 단원이라고 말하죠.” 그는 스스럼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 남자는 오후 내내 늦게까지 머물렀고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커피메이커에서 커피를 한 번 더 끓여 마셨다. 그의 방문은 이 부부의 마음을 가라앉혀주었고, 자신들이 앞으로 닥칠 일들을 이겨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그가 마침내 작별을 고했을 때 데이비드와 린다는 그 남자가 시원한 저녁 공기 속으로 담대하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돌아서보니, 그가 진열대 위에 빈 커피 잔 옆에 놓고 간 시곗줄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천사모양의 은 옷핀이 놓여있었다.

“그분을 뒤쫓아가 봐야 하는 거 아녜요?” 린다가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그분은 돌아 올 거야. 금목걸이 값을 선불로 내셨거든. 그리고 그분이 고르신 게 고가품이었거든. 이 물건들을 가지러 오실거야.”

데이비드가 주문한 목걸이는 2주후에 도착했다. 린다는 팔린 물건이라는 표시를 하고 강도들을 잡고 나서 경찰이 되돌려준 남자 반지들과 함께 진열장에 놓아두었다. 그 손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시곗줄, 금목걸이, 그리고 작은 천사 모양의 은 옷핀은 오늘도 거기 그대로 있다. 18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천사

조이가 한번도 꺾어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겨울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도착한 그 주부터 미시간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눈이 매일 한 겹 두 겹 쌓여갔다.

지금 조이는 위층 창가에 서서 눈꽃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있다. 그녀가 눈가의 눈물을 닦으며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저는 남부 출신이에요. 저는 햇볕에만 익숙해요.”

그녀는 남편이 미시간으로 발령이 나서 한 겨울에 3 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고 와야 한다고 말해줬던 그 날을 기억했다.

“모두 다 같이 갑시다.” 그가 말했다. “새로운 모험이 될 거야!”

이제 그 모험은 완벽하게 진행 중이고 조이는 외로웠다. 그녀의 남편은 일하러 갔고 아이들은 동네 친구들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공원에서 눈으로 요새를 만들고 있다. 모든 나무들이 조명이 달린 크리스마스트리 처럼 보이고 작은 연못이 반짝반짝 빛나는 공원 쪽을 조이는 뚫어지게 보았다.

뭘, 예쁘기는 하다. 예쁘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다고 그녀는 혼자말로 속삭였다.

바로 그때 아이들이 보였다. 그들이 집을 향해 허겁지겁 오는 모습이 바람으로 쌓인 눈 사이로 조금씩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있는 저건 누구지? 남자아인가?

“다녀왔습니다, 엄마! 앤 버디예요. 공원에서 만났어요!” 그녀의 아들이 소리쳤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버디는 그녀가 보아온 아이들 중에 부모님의 보살핌을 가장 적게 받은 아이가 분명했다. 그는 머리를 깎아야 했다. 재킷은 때가 땀다. 털모자는 치수가 2개 정도 더 컸다. 젖은 장갑은 뒷주머니에 구겨져 놓여있었고 그의 손은 빨갛다. 코에서는 콧물이 흘러내렸다.

조이가 세 명의 아이들 뒤로 문을 닫자 버디가 말했다. “제가요 공원에서 아주머니네 아이들이랑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아주머니가 사는 곳을 보러왔어요.”

“그랬구나. 하지만 너희 엄마는 내가 여기 온걸 아시니?” 아주 좀 투명스럽게 조이는 물었다.



“아, 엄마는 상관 안 해요! 엄마는 밤에 일하고 낮에 자요. 저녁 먹을 시간 전에만 가면 돼요.” 버디가 그들 모두를 안심 시켰다.

저녁 먹을 시간? 맵소사! 이제 겨우 오전 11시인데! 조이는 생각했다.

조이는 점심을 간식쟁반에 담아 난롯가에서 먹을 수 있게 대접했다. 그녀가 버디의 쟁반에 스프와 치즈 토스트를 담아주자 그는 별떡 일어나 “야호! 고맙습니다.”라고 기쁘게 말했다.

결눈질로 보니 버디가 밥을 먹는 모습은 “열성적”이라는 말이 제일 딱 어울렸다.

나머지 오후 시간동안 아이들은 집안전체를 장난치며 뛰어다녔다. 어느 순간 버디는 잠깐 멈추더니 피아노 의자에서 음악책을 하나 집어 들었다.

“저는 오르간을 한번 본적 있어요.” 그가 말했다. “오르간은 의자 밑에 사람들이 발로 밟는 기다란 막대가 있습니다.”

“맞아.” 읽고 있던 잡지위로 겨우 조금 흘긋 올려다보며 조이가 대답했다.

“나도 오르간을 연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가 말했다.

“나도 자주 같은 생각을 해.”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버디는 장난감 병정 부대를 가지고 병장 노릇을 하며 놀러 다시 재빠르게 가버렸다.



이제 오후 4시가 되었고 조이는 버디를 내보낼 궁리를 했다. 무슨 말을 하면 될까? 해야 할 집안일이나 숙제가 당연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가능한 상냥하게 제안했다. 아이들은 모두 숙제가 있다고 동의했다. “근데 버디가 가기 전에 난로 앞에서 핫초코 한잔만 마시면 안 돼요? 제발.” 아이들은 빌었다.

조이는 거절하기 시작했지만 아주 간단한 부탁이었고 그녀는 버디가 핫초코를 마시면 집으로 가는 먼 길을 따뜻하게 갈수 있다는 걸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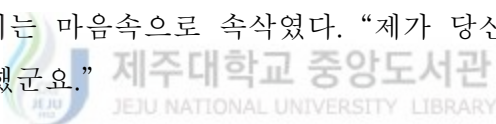
마침내 핫초코를 다 마시고 컵 가장자리에 묻은 마지막 남은 마쉬멜로우를 훔아먹었다. 버디는 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지저분한 재킷과 아직도 축축한 장갑을 집어 들었다. 참 다행이라고 조이는 생각했다. 갑자기

문손잡이를 잡은 채 그는 그녀의 아들에게 말했다. “너희 엄마는 천사라고 말씀드려!”

조이는 얼어붙었다 - 다정한 칭찬 한마디가 그녀의 귓가에서 울리고 있었다. 천사? 마지못해 스프와 치즈 토스트를 주고, 그 아이의 더러운 셔츠를 눈여겨봤지만 그 아이의 맑고 파란 눈은 한번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부주의한 것을 책망했고 어떤 사정으로 그녀가 길고 피곤한 밤 내내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았던 내가? 그녀는 머리 속에서 그날 하루를 되짚어 보았다.

자신이 얼마나 무감각했었는지에 놀랐다. 나는 그 아이를 환영했어야 했다. 나는 결눈질 말고 좀더 다정하게 쳐다봐 주었어야 했다.

“오 하나님.” 조이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제가 당신의 어린 양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 했군요.”



이제 문이 열렸고 갑작스레 눈물이나 그녀의 뺨에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몸을 구부려 한 팔은 아들 어깨에 다른 한 팔은 이 불품없는 아이에게 올려놓았다. “언제든지 또 놀러오렴, 버디야.” 그녀는 말했다.

버디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 눈 쌓인 길가로 나갔다. 그는 다시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커다랗고 명랑한 미소가 있었다.

마지못해 하는 천사에게도 날개는 줄만했다. 19

## 우편함 천사

그 카드는 우편으로 끊는 듯이 더운 어느 여름 오전에 왔다. 아무도, 적어도 홀링워스 가족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리즈는 그런 대로 견디는데 능숙했다. 그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빠듯한 살림을 꾸리는 방법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시련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문제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선천성 심장 결함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기쁘게도 아기가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의료비 청구서는 계속 홍수처럼 늘어갔다. 매일 의료비가 쌓인 더미 위로 청구서가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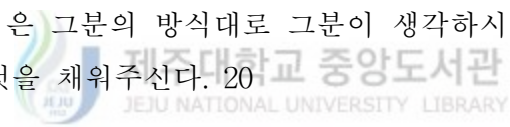
리즈와 립은 주택 융자금을 붓고 식탁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내놓고 공과금을 내느라 고군분투했다. 그들은 새 신발이나 옷을 사지도 못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갔다. 그리고 음식비 예산은 강낭콩과 쌀로 연명하느라 더 늘어갔다. 시간여유가 있는 날이면 살림에 보태기 위해 부부와 아이들은 뒤뜰의 대부분을 경작해 완두콩, 토마토와 호박을 심었다. 여전히 가족은 겨우 살아갔다.

카드는 어느 날 오후 일찍 도착했다. 리즈는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우편물들을 보았다. 그녀는 서둘러 우편물을 열어 보지 않았다.. 어쨌든 대부분이 청구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카드는 달라 보였다. 주소는 손은 쓰여 있었고 보낸 사람의 주소는 없었다 - 단지 오클라호마주 데퓨시라는 소인만 찍혀있을 뿐. 그곳은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녀가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 아무도 없다.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

리즈는 봉투 뒷면에 붙은 금봉어 마크를 찢어내며 봉투를 열었고 봉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카드 앞면에는 하늘을 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는 켈트 무늬의 날개에 천 조각으로 만든 가운을 입은 다소 미국적이었다. 샌들 한 켤레가 천사의 발을 우아하게 장식하고 주석으로 된 후광 고리는 천사의 머리를 아래로 내려 보려 했지만 잘 안 된 듯 보였다. 금발의 머리는 곱슬곱슬했고 바람에 뒤로 젖혀져 있었다. 봉투 안에서 리즈는 짧은 시 - 2행시를 발견했다. “단추와 나비넥타이와 당신의 발을 위한 신발을 사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월마트 상품권이 함께 들어 있었다. 50불짜리 상품권들은 아이들 것으로 되 있었고 액수가 더 큰 것은 리즈와 남편 것이었다. 상품권에는 “당신의 수호천사” 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리즈는 카드를 가슴에 대서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병원비가 계속 책상 서랍 속에 쌓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이 선물을 일종의 첫 불입금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20



근심이 구름으로 덮여있는 이 어두침침한 세상에서  
당황한 눈으로 하얀 날개들이 근심을 거두어 주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

제롤드 마세이

## 우리에게 미래를 말해주는 천사들

천사란 사자(使者)와 사절(使節)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천사들은 영혼이다, 하지만 이 말은  
그들이 영혼이기 때문에 천사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 천사가 된다.  
천사라는 이름은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과 연관이 있다.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영혼이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바로 사자(使者)라는 천사의 의무이다.

성 아우구스틴



## 다니엘의 비전

바사 왕 고레스 제 삼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려진 다니엘에게 한 계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참된 것이었으나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웠더라. 그것은 그에게 환상으로 설명이 되었으리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내가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얼굴이 변하여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리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천사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미래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미래에 관한 환상이라.” 21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위대함을 찬미하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 계시록 14:6 - 7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는 천사

여러 사람이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훼손될 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용기를 잃지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더라. 22



## 화해의 말

미셸은 누군가가 자신 옆에 서있다는 느낌을 받고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그녀의 침대 옆에 눈부신 천사가 서 있는 것이었다.

그가 두려워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태양만큼이나 따뜻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천사가 말했다.

그는 마치 미셸에게 자신이 한 말을 생각해 볼 여유를 주듯이 잠시 남아 있었다. 그리고서 그는 뒤로 물러나더니 사라졌다.

미셸은 작년에 어머니를 만나보지 못했고 아버지도 자주 뵈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미셸의 남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참석하는 가족 모임에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다. 이제는 가슴 아프게도 떨어져 지내게 된 것이다.

천사가 그녀에게 전해준 전갈을 생각하며 미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여러 해 동안 그녀가 부모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했던 일들은 모두 헛수고였고 결국 그녀는 포기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라는 말씀이신가? 이제 와서 그녀의 노력이 다르게 여겨질까? 그녀는 부모님이 아버지의 절박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지도 궁금했다.

미셸은 부모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하면서도 크리스마스를 며칠 남겨두고 두 분을 집에서 하는 가족 파티에 초대했다. 놀랍게도 그리고 기쁘게도 부모님들은 파티에 오셨다. 갑자기 오랫동안 가족을 갈라놓았던

장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화해의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몇 주 후 미셸의 어머니가 전화를 해 아버지가 아프다고 말했다. 2월에 진찰을 받았는데 폐암을 선고 받은 것이다.

미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천사의 진갈에 응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곧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돕겠다고 제안했다.

미셸의 아버지는 그해 6월에 돌아가셨다.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그는 그가 바라던 데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실 수 있었다.

미셸은 천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같은 그 날들을 항상 소중히 여길 것이다. 23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천사가 와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천사는 나에게 가장 위독한 순간에도 나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것이고  
나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며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천사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빌리 그레이엄

##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

능력이 있어 여호와와 말씀의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와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20

오,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찬미합니다.  
주께서 왕이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온 땅이 영원하신 아버지, 주를 찬송합니다.  
하늘과 모든 권세가 그곳에 라고  
주께 모든 천사들이 큰소리로 외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 이라고  
주께 체루빔 세라핌이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늘과 땅이 당신의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합니다.

아침 기도 성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다

내가 (사도 요한) 보니 하늘에 열린 문 하나가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보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 보좌 앞에 쉰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가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황소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

나이다.” 하더라. 24

천사들이여, 우리를 도와 그분을 받들어라.  
너희는 그분을 마주하여 보는구나.  
태양아, 달아,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려 절 하거라  
모든 시간과 공간에 머무는 자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와 함께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1 - 2



## 하나님의 성역

셀라는 원래 집에 틀어 박혀 있기를 좋아한다. 그녀는 여행을 거의 하지 않았고 미국 밖으로 나가 본적도 없었다. 그래서 멕시코로 어느 소규모 신도단의 교회건설을 돕는 일을 지원한 것은 그녀의 신앙생활에서 꽤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벅하트 사제가 그녀에게 말했다. “일은 힘들어요. 시멘트를 붓고, 벽돌을 쌓고 하느라 하루하루 오래 일해야 하구요. 하지만 일본일초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착해요. 그들을 돕는다는 게 기쁜 일이죠. 이런 여행은 당신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예요.” 사제의 말과 이전에 이미 이 여행을 해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마침내 믿음으로 여행을 떠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아야겠다고 확신이 생겼다.

셀라는 작은 마을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 하고 여러 번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버스가 마을에 도착하자 그녀는 믿기지가 않았다. 큰길은 최근에 온 비로 진흙투성이였다. 신호등도 없고 진흙이 묻은 차만 몇 대 있을 뿐이었다. 유아레즈에서 겨우 3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에도 교회 단체가 있는 그 작은 마을 도시는 대도시의 문명화된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었다. 그곳 사람들은 완전히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진흙과 깡통과 주변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동원해서 만들어졌다. 하수 시설도 없었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녀는 같이 온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 거리에서 만납니다.” 라고 대답했다.

벽하트 사제의 말이 맞았다. 하루는 길었고 일은 고됐다. 2주 동안 매일 그들은 형편없는 도로로 해서 이 작은 마을로 차를 타고 갔다. 마침내 작은 방 하나를 갖춘 콘크리트 빌딩이 큰길가 끝에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쉴라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되었다. 비록 그들이 영어를 거의 못했고 그녀도 스페인어를 거의 못했지만 그녀는 이 사람들이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일을 할 때면 적어도 한번 이상은 마을 사람들 중 한명이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해 주었다.

그러한 소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쉴라에게 가장 값진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작은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새로운 교회 건물에서 예배가 거행되었다. 실내에 의자 몇 개가 놓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에 담요를 깔고 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노래했고 많은 시간을 열렬하게 기도했다. 쉴라는 이들을 조용히 앉아 지켜보았다. 그들이 소유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이 교회는 신도 좌석이 있거나 바닥에 카펫이 깔려있는 그녀에게 익숙한 고향 교회들처럼 아름답거나, 크거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만족하는 것일까?” 그녀는 하나님에게 속삭였다. 바로 그때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았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교회 제단 너머로 교회 앞에 날개를 펴고 두 명의 천사가 서있었다. 다른 두 명의 천사는 뒤쪽에 있었다.

쉴라는 잠시 동안만 천사들은 본 것뿐이었지만 그녀는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그들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누가 과연 주님의 성스러운 천사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특권보다 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천사들의 방문이 누추한 건물을 하나님의 성역으로 바꾸어 놓았다. 25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혹은 빛의 왕국에서 하나님을 시중을 드는

너희 밝은 빛을 발하는 거룩한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을 날며

우리들의 노래를 도우소서

도우실수 없으시다면 그 소중한 노래만이라도 거들어주소서

인간의 혀로 그분을 찬미하는 노래를 하기에는

너무나 고귀함이니 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존 햄프든 거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 계시록 7:11 - 12

## 하나님의 목적을 실천하는 천사들

천사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하더라.

히브리서 1:7



천사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신성한 비밀은 감춘다.

다마스쿠스의 사도 요한

천사들은 자신의 의무를 실천한다

내가 (사도 요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망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각각 일만 이천 인침을 받은지라, 그 지파들은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잇사갈, 스블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이더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리를 준비하더라. 26

여호와께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21 GNT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을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며 우리의 선행과 악행을  
위대한 책에 기록하는 두 명의 천사가 있다.

한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채워지  
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다른 천사는 악행으로 가득한 그날의 책을 펴 놓은 채 해가 질 때까지 기  
다린다.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악행을 회개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행위의 기록은 서서히 사라지고 책장에는 하얀 한 줄의 선만 남는다.

헨리 워즈 워스 롱펠로우

히치하이커

다이안 칼버트 목사는 자신의 파란색 차인 노바에 올라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기분이 들떠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여러 명의 목사들과 함께 그는 지난 27시간동안 기도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모두 함께 자신들의 맘속을 털어놓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지역의 사람을 위한 기도를 했고 또 특별히 자신들의 교구민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며 아주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제 시간은 새벽 2시 30분이었고 칼버트 목사는 막 러복을 떠나 텍사스에 있는 멀레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와 집 사이에는 35마일의 어둡고 달도 없는 서부 텍사스 고속도로가 놓여있었다. 하지만 다이안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행복했다.

멀레쇼로 출발해서 처음 반쯤 갔을 때 고속도로에는 인적도 없고 밤은 고요하니 아무 일도 없었다. 어두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느라 그랬는지 다이안은 겨우 몇 야드를 남겨두고서야 갓길에 세워져있는 차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차의 속도를 낮췄고 두 명의 남자가 조수석 쪽에서 아마도 타이어를 가는 지 무언가 작업 하는 것을 보았다.

다이안은 차를 세울까도 생각했지만 재빨리 마음을 바꾸었다. 어찌되었든 그 사람들은 차를 고치고 있었고 한밤중에 인적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낯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길을 내려가며 다이안은 찬양을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아 가보려 했지만 기쁜 마음이 들기보다는 마음속이 계속 불편했다. 누구라도 이런 시간에 차를 세우기 꺼리지 않았을까?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다.

“주님” 그는 열의가 넘쳤던 방금 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도했다. “주께서도 아까는 위험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꿑꿑이가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게다가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괜찮을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이안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기분이 더 좋아지지는 않았다. 결국 그는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주님, 제가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저의 마음을 열어 보여야 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들은 제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저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늦은 시간이라도 다음번에 제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차를 세우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남자가 어둠속에서 걸어 나와 손을 흔들었다. 갓길에는 차도 없었고 근처에는 집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차를 멈추고 낯선 사람이 서있는 쪽으로 후진했다.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조수석 쪽으로 왔고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차안에 덩석 앉았다.

“안녕하세요, 전 칼버트 목사입니다.”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대답했다. “전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상대방의 이상한 대답에 난처해하며 다이안이 물었다.



“그냥 위에 이 길로 쪽 이요.” 그 남자가 대답했다.

몇 마일을 조용히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남자가 물었다. “오늘 저녁엔 어디를 다녀오시는 건가요?”

“기도 모임이요.” 다이안이 대답했다.

남자는 호의 있는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텍사스의 수단에 도착하자 그 이방인은 다이안에게 그 마을 광장 근처에서 자신을 내려주라고 말했다. 다이안이 그를 내려주자 그는 악수를 하고 세워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다이안은 다시 고속도로로 차를 돌리며 그 남자가 가로등 밑에 서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벌써 감을 잡았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고매한 말과 승고한 활동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 시려 천사를 보내신 것이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두려움과 편리함과 개인적인 일을 초월하여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 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뜻한다. 칼버트 목사는 하나님을 조용히 찬양하고 하나님 주변 세상에 겸손하고 애정 어린 마음이 함께 하기를 기도 하며 여행의 남은 시간을 보냈다. 27

천사에게 한대 맞다

마크는 대학의 방학을 맞아 집에 머물면서 차고 문 회사에서 설치공으로 일하며 기분 좋은 캘리포니아 남부 여름의 따뜻한 날씨를 즐기고 있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았고 잠시 공부를 쉬고 육체노동을 하는 것도 좋았다.

문제의 그날 마크와 한 동료는 혼다 자동차 판매점에서 대형차고 문을 설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심히 문의 위치를 잡고 인장 장치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두 사람이 500 파운드 문을 머리위로 해서 크랭크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판매점 직원들이 와서 이들을 지켜보았다. 마크가 한쪽을 잡았고 그의 동료가 다른 쪽 끝을 잡은 채 그들은 알맞은 인장 크기를 시험해보면서 조심히 스프링에 걸린 체인을 감았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전에도 여러 번 해보았지만 오늘은 뭔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았다. 문 틈 위로 눈에 띄지 않는 썩은 나무 부위가 결정적인 순간에 꺾어졌다. 마크는 말 그대로 자신의 머리위로 떨어지는 문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그가 아는 다음 일은 그 문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는 몇 피트 떨어진 벽 옆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가까이 서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그의 옆으로 갔다. 그가 떨고 있었고 숨차하기만 할뿐 괜찮은 것을 보고 안심했다.

모든 목격자들은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 의견이 같았다. 그들은 제자리에서 문을 지탱하고 있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뽕 하는 큰소리를 들었다. 일순간 모든 것이 공중에 멈춘듯했다. 그리고서 그들은 마크의 가슴이 누군가에 의해 한대 맞은 것처럼 그가 뒤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마크는 포도 알 만한 멍든 자국을 발견했다. 거울

로 그것을 보니 손가락 마디 자국이 분명하게 보였다. 떨어지는 문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게 천사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것일까? 마크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나? 천사는 마크가 그 목적을 실천하도록 도우라는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가?

마크는 아침에 일어나 짙은 보라색 멍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보고 이러한 의문들이 더 궁금해졌다. 28

하나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 24:31



파수꾼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본 아셀트와 그의 아내는 수마트라에 있는 미개 종족인 바타 부족민들 사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라는 부르심을 깨달았다. “처음 갔을 때 2년 동안” 본 아셀트가 말했다.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오싹합니다. 우리는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의 있는 어둠의 힘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바타 지도자가 선교사에게 와 말했다. “투안(선생님이라는 뜻) 지금 요구할게 있소. 나는 당신의 파수꾼들을 보고 싶소.”

“무슨 파수꾼이요?” 그는 놀라며 물었다. “저는 파수꾼이 없는데요.”

“당신이 밤에 당신네들을 보호하려고 집 주변에 세워둔 파수꾼 말이요.”

“하지만 저는 파수꾼이 없어요.” 그가 반복해서 말했다. “저는 어린 목동 한 명과 어린 요리사만 있고 그들은 파수꾼을 하기에는 서투른데요.”

그 남자는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는 것 같았고 말하기를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 다른 말로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시오. 파수꾼들이 집안에 숨어있는지 당신의 집을 조사해도 되겠소?”

“네, 좋습니다.” 선교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집안을 조사해보세요,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안으로 들어가 온 집안 구석을 살펴보고 침대까지도 뒤져봤다. 마침내 그는 매우 실망하여 밖으로 나왔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 그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매우 화가 났소.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결심 했소. 우리는 당신의 집을 밤마다 방문했소.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당신 집 주위에 항상 번쩍이는 무기로 무장한 파수꾼들이 두 줄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있었소. 우리는 감히 당신들을 공격하러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전문 살인 청부업자에게 갔소. 우리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집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해 말해주며 당신과 당신의 아내를 죽여 달라 부탁했소이다. 그는 우리를 비웃으며 말했소. ‘나는 하나님과 악마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 파수꾼들을 쉽게 빠져나갈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모두 함께 모였고 그 살인 청부업자는 머리위로 무기를 빙 돌리며 우리 눈앞에서 용감하게 나갔소. 우리가 당신의 집에 가까이 가자 우리는 뒤에 남고 그를 혼자 보냈소이다. 얼마 안돼서 그는 뛰면서 되돌아와 말했소. ‘안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감히 저들을 뚫고 갈수가 없소. 크고 건장한 남자들이 두 줄로 서로가 아주 가까이 서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불처럼 빛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죽이는 일을 포기했소이다. 하지만 말해주시오, 투안. 그 파수꾼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본적은 있나요? “

“아니오.” 그 선교사는 대답했다. “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그들을 본적이 있나요?” 그가 물었다.

“아니오.” 선교사가 답했다. “제 아내는 그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집안으로 들어가 성경책을 가져왔다. 책을 펴고 그는 바타의 지도자에게 말했다. “이 책은 저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안에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읽기 시작했다.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두려워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방으로 지켜주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 주신다.(시편 34:7)”

“보십시오.” 선교사가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믿음을 배우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파수꾼을 보여주셔야 했던 겁니다.”<sup>29</sup>



## 주님의 천사

여호와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시편 34:7



성경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읽기를 천사들은 천국의 영혼들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명령하신 모든 목적을 실천하시고자 주께 복종하고 봉사하는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천사는 그분의 뜻을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하기위한 일종의 중간 메신저라는 존재의 이름이다.

존 칼빈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방문하다

여호와와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프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와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 하신이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다.”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을 알고 이르되 “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30

그리스도교인들은 천사들의 영광스런 업적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태양이 초의 불빛을 가리듯 악마의 힘의 세계를 영원히 소멸시킨다.

빌리 그레이엄

천사들은 마치 왕의 도착을 선포하기 전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선택된 사절단이다.

안드레아 가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요한계시록 22:16

## 이 책에 도움을 주신 분들

1. *해룻의 손으로부터 안전하게*, 마태복음 2:1-5, 7-15.
2. *한밤중의 방문객*, 인터뷰와 글
  - 엘레스 홀리스, 오클라호마 주, 모리스 시.
3.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앤 스틸, 오클라호마 주, 털사 시.
4. *태풍이 부는 내내*, 인터뷰와 글
  - 레베카 커링턴, 오클라호마 주, 털사 시.
5. *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하다*, 사도행전 12:1-12 GNT
6. *미지의 구조자*, 인터뷰와 글
  - 엘레스 홀리스, 오클라호마 주, 모리스 시.
7. *추락*, 인터뷰와 글 - 레베카 커링턴, 오클라호마 주, 털사 시.
8. *전차선로에 끼다*, 마리 애스너, 캔사스 주, 오버랜드 파크 시
9. *벳시 윌리엄스의 시*, 수록 허가 받고 사용.
10. *에드 스트라우스의 시*, 수록 허가 받고 사용.
11. *불의 검*, 모리스 플라트, 하나님의 뉴샤론 회(New Sharon Assembly of God) 설립자, 아이오와 주, 뉴샤론 시, 수록 허가 받고 사용.
12. *바퀴 뒤에 천사*, 매리 엘리스 트랜트, 오클라호마 주, 털사 시.
13. *호수에서 일어난 일*, 나네트 토센-스나이프, 조지아 주, 버포드 시.
14.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1-15
15. *문가의 천사*, 인터뷰와 글
  - 엘레스 홀리스, 오클라호마 주, 모리스 시.
16. *빛나는 지팡이*, 인터뷰와 글
  - 엘레스 홀리스, 오클라호마 주, 모리스 시.
17. *천사들이 엘리야를 섬기다*, 열왕기 상 19:1-9 GNT
18. *양복 깃의 편*, 인터뷰와 글
  - 엘레스 홀리스, 오클라호마 주, 모리스 시.

19.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천사*,  
조이 모건 데이비스, 텍사스 주, 달라스 시.
20. *우편함 천사, 인터뷰와 글*  
- 엘레스 홀리스, 오클라호마 주, 모리스 시.
21. *다니엘의 비전*, 다니엘 10:1-14 GNT
22.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는 천사*, 사도행전 27:21-25
23. *화해의 딸*, 미셸 마아, 캘리포니아 주, 헌팅턴 비치 시.
24.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다*, 요한 계시록 4:1-11 GNT
25. *하나님의 성역*, 인터뷰와 글  
- 레베카 커링턴, 오클라호마 주, 털사 시.
26. *천사들은 자신의 의무를 실천한다*, 요한 계시록 7:1-8; 8:1-6 GNT
27. *히치하치커*, 다이안 칼버트 목사, 텍사스 주, 루프킨 시.
28. *천사에게 한대 맞다*, 마크 모에스타, 오클라호마 주, 털사 시.
29. *파수꾼*, 딕 인즈, ACTS 인터내셔널 (ACTS International) 설립자,  
캘리포니아 주, 아카디아 시
30.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방문하다*, 사사기 6:11-24

## 참고 문헌

### I. 국내 문헌

- 안정효, 『안정효의 영어 길들이기 - 번역편』, 현암사, 1996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넥서스, 2001  
『현대인의 성경』, 생명의 말씀사, 1987  
『개역개정판 큰 글자 성경전서 해설 찬송가』, 생명의 말씀사, 2001  
이창배, 『골든 세계문학전집 4 - 밀턴의 실낙원/ 복락원』, 중앙출판사, 1994

### II. 국외 문헌

- Douglas Robinson, 『Becoming a Translator - An Accelerated Course』, Routledge, 199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III. 웹사이트

- ACTS International. <[www.actsweb.org](http://www.actsweb.org)> (assessed 30 May 2006)  
New Sharon Assembly of God. <[www.nsassembly.org](http://www.nsassembly.org)>  
(assessed 30 May 2006)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assessed 17 May 2006)